

임선주 센추리클럽 가입 '영예'

아놀드 클라크컵 잉글랜드 전 선발 출장 풀타임 활약 조소현·지소연 등 이어 7번째... 대표팀 부동의 센터백

제주출신으로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 부동의 센터백인 임선주(사진)가 마침내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했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임선주는 이날(한국시간) 잉글랜드 밀튼 케인즈의 MK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아놀드 클라크컵 1차에 선발 출장해 풀타임 활약했다. 임선주는 이날 경기 출전으로 한국 여자선수 중 7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2009년 대표팀에 데뷔한 임선주는 14년 만에 센추리클럽을 달성하게 됐다.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한국 여자선수는 조소현, 지소연, 김점미, 김혜리, 권하늘, 전가를 등이다.

남자대표팀인 경우도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홍명보(136회), 차범근(130회), 손흥민(108회) 등 14명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 콜린 벨 감독이 임선주의 센추리클럽 가입을 축하해 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임선주는 대표팀의 베테랑 중 한 명이다. 아시안컵과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회에 출전했고 여자월드컵에도 두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에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또 소속팀 인천현대제철에서도 꾸준히 활약하며 수많은 우승에 일조했다.

수비수임에도 A대표팀에서는 6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서 U-20 대표당시에는 16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임선주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명단에는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를 뛰어난 적이 없다. 이번만큼은 꼭 월드컵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목표를 전했다.

한편 임선주는 이번 대회 출전에 앞서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대표팀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는데 저희 여자대표팀도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또한번 기쁨과 감동을 드리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선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상윤기자



우리는 하나, 누가 실수하든 함께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스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월드컵예선(WBC) 2023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훈련. 대표팀 투수들이 수비 훈련 중 한 선수가 실수를 하자 밝은 표정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벌칙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구·허지광 '산악제주' 명성 잇는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 부문서 고흥구 4위·허지광 14위 기록

고흥구(제주관광대 1)와 허지광(한림고 3)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산악의 명성을 알렸다.

고흥구는 지난 18일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산악(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부문 3-4위전에서 4위를 기록했다.

고흥구는 예선전에서 15초84로 11위로 16강전에 안착하고, 16강전 예선 13초61로 5위 8강전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 충남 임형섭을 0.50초 차로 따돌리고 4강전에 진출했지만 강원 현명진에게 패하며 3-4위전으로 밀렸다. 3-4위 결정전에서는

전남 이영건에 1초76차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해야 했다.

고흥구는 앞서 지난해 대회에서 16초33으로 11위를 차지한 후 1년 만에 4위까지 오르는 등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종합점수 남자 일반부 스피드 85점으로 8위를 하며 2022/2023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뒤 고흥구는 "2022년에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해서 청소년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참가했고,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월드컵에 참가해서 영광이었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리지



고흥구 허지광

못해 아쉬웠다"면서 "올해도 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가 되어 전국체전은 물론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출전한 허지광은 스피드 부문 예선전에서 17초94로 12위하며, 16강에 진출했으나 실수로 추락하며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조상윤기자

여오현 V리그 사상 첫 600경기 '눈앞'

오는 21일 우리카드 전서 금자탑 달성 전망

여오현(45)이 V리그 역대 최초 정규리그 6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V리그 남녀부를 통틀어 역대 최고령 선수인 현대캐피탈 플레잉코치 여오현이 지난 15일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정규리그(컵대회, 챔피언결정전·플레이오프 등 포스트시즌 경기 제외) 599경기 출장했다.

지난 18일 KB손해보험과의 경기 출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여오현의 600번째 경기는 2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예정된 우리카드전이 될 전망이다. 홈 경기에서 대기록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최태웅 감독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1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여오현은 흥익대를 졸업한 후 프로리그 출범 이전인 2000년 삼성화재에 처음 입단했다. 이후 2005년 V-리그 출범과 함께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12-2013시즌까지 9시즌 동안 삼성화재에 몸 담았던 그는 2013-2014시즌 현 소속팀인 현대캐피탈로 둥지를 옮긴 뒤 지금까지 10번의 시즌을 함께 하고 있다.

여오현은 리그 최고의 리베로로 활약하며 팀을 정상 위에 올렸다. 그는 삼성화재 시절 5번의 정규리그 1위와 현 소속팀 현대캐피탈에

서의 2번의 정규리그 1위를 합쳐 총 7번의 정규리그 1위를 거머쥐었다. 역대 남자부 V-리그 선수들 가운데 8번의 정규리그 1위를 달성한 대한항공 유광우 다음인 2위(공동 2위, KGC인삼공사 고희진 감독)의 기록이다. 또 삼성화재 시절 7번의 챔피언 우승에 더해 현대캐피탈에서 2016-2017시즌과 2018-2019시즌 2번의 챔피언 우승으로 총 9번의 챔피언 우승을 달성하며 역대 남자부 V-리그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챔피언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오현은 현재 디그 성공 5197개, 리시브 정확 7912개, 수비 성공 1만3109개를 기록하며 수비 부문 모든 항목에서 부동의 1위에 자리하고 있다. 남자부에서 수비 1만개를 달성한 선수는 여오현이 유일하며, 은퇴 시 수비 부문 신기록상 달성이 예정돼 있다. 조상윤기자

대기고, 16강 문턱서 고배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대기고의 올 시즌 첫 활극은 아쉽게도 16강 문턱에서 물러서야 했다.

대기고는 19일 경남 양산시 디자 인공원 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부산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20강전 홈그라운드인 범어고와 경기에서 전후반 0-0으로 비긴 뒤 가진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하며 16강전 진출이 좌절됐다.

20강 추첨결과 1조 2위(대기고)와 5조 2위(범어고)의 맞대결은 전후반 80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지만 양 팀 모두 아무런 득점이 없

이 끝났다. 결국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렸다.

하지만 대기고는 올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며 과거의 명성 되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골잡이 허은제의 활약여부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축 임
CONGRATULATIONS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 송 남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 송 남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생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 재 성
(주)재밋섬파크 대표이사

제 13기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더불어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무근성마을회 · 성짓골소리합창단 일동

축 득
CONGRATULATIONS

행정학박사 학위



박 종 명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훈 모 심